

교도소 텅 비는 그날까지 법회 열겠다

불교법사단, 30년째 재소자 법회

“이곳은 마음공부하기 가장 훌륭한 수행도량입니다. 교도소를 국립호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열심히 수행하세요.”

불교법사단(단장 혜창, 이하 법사단)은 7월 20일 부산교도소 내 종교관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14명의 부산·경남지역 스님들로 구성된 불교법사단은 올해로 30년 넘게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교정교화에 매진하고 있다. 한때 전국 조직폭력배 계보를 주름잡던 조직의 큰형님들도 이제는 대덕 스님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사제가 됐다.

이날 법회에는 재소자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자 재소자들이 직접 사회와 집전, 피아노 반주 등을 도맡아 여법하게 이뤄졌다. 이들은 장기 복역자 가운데 모범수들로 <반야심경>을 외워 봉독할 만큼 열의를 보였다.

법회는 교도소 측 일정에 따라 날짜와 시간이 조정되기 때문에 법회일은 유동적이다. 그럼에도 1000여 재소자 중 절반인

500명 정도는 꾸준히 법회에 동참하는 등 부처님 가르침과의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교도소법회는 사찰에서 행해지는 일반 법회의 식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재소자들의 특성상 스님의 법문 내용은 물론, 봉사하는 신도들의 언행과 몸가짐은 조심스럽다. 이들은 큰 죄를 지어 교도소에 왔지만 오랜 수감생활로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쉽게 동요할 만큼 마음이 약해진 탓이다.

혜창 스님은 “한 재소자의 경우, 사형선고를 받고 장기 복역 중인데 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철창 문소리가 날 때마다 손가락을 깨물어 열손가락이 모두 성치 않았다”며 “범죄자들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말 한마디를 조심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년 전 법사단에 처음 가입한 한 스님이 법문에 앞서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를 했다가 “여태 출소하지 못하고 두 달 후에 또 만나 반갑다는 것은 놀리는 처사”라는 핀잔을 듣는 적도 있다.

총무 만요 스님(석대암 주지)은 “우리



불교법사단은 재소자들의 불심을 일깨우기 위해 30년째 노력 중이다.

사회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재소자와 우리는 탐진치를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미혹되는 가하는 차이 뿐”이라며 “불자라면 이들을 무서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대자대비한 부처님 마음으로 감싸안는 보살행을 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법사단의 목표는 교도소가 텅텅 비어 더 이상 정기법회를 열수 없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이다. 부산교도소의 모든 재소자들이 마음 속 불심을 알아차려 평화로운 불국정도를 이룩하기 위해 14명의 큰형님들은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박지원 기자

국적 달라도... 佛子로 하나된 체육대회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매일 힘든 일을 하다. 오늘 하루 다른 나라 친구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대표 이주성)는 7월 16일 정광중학교 교정에서 외국인근로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육한마당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에는 보혜 스님, 김진희(좋은세상 대표), 키티 스님(스리랑카), 티샤 스님(스리랑카), 디한타 구마라시(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서기관을 비롯해 스리랑카, 베트남, 네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념식 후 국가별로 축구, 배구, 율법기 대회 등을 진행했다. 대회 결과 베트남은 축구에서, 네팔은 배구, 스리랑카는 율법기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경기가 국가별로 진행되다보니 각 참가자들이 별도의 연습을 실시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기념식에서 보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타국생활에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다. 오늘과 같은 만남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고국에서 불교를 믿었듯이 한국 사찰을 찾아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에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키티 스님도 이날 자국어 근로자들에게 마음속 평화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스리랑카 대사관은 행사를 후원한 사단법인 좋은세상 김진희 대표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거도, 불심으로 꽃을 피우다

섬 불교 포교단 포교행사

광주전남전법단(단장 도제) ‘한국의 섬 불교 포교단’은 7월 16-17일 가거도에서 ‘섬 불교 포교행사’를 벌였다.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단장 정영균, 호남불교문화원(원장 이준영)과 공동으로 열린 행사에서 마을 주민들과 스님, 포교사들은 함께 화합하며 하루 종일 음악과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곳 신도들은 스님도 없이 용궁사를 30년간 이끌어오고 있다. 가거도에 도착한 일행은 용궁사를 참배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섬 불교 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혜종 스님(목포 정혜원 주지)과 포교사, 공연팀, 한의사, 이미용 봉사자 등 30여 명이 동행 했다. 단원들은 주민들을 위해 한의(韓醫)와 이미용 봉사, 위안공연 등을 펼쳤다.

정영균 단장은 인사말에서 “스님이 없는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사찰을 이끌어 온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섬 불교 포교단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매일 1회씩 전남지역 섬을 찾아다니며, 인근 사찰과 연대해 포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 마을엔 밥 굶는 어르신 없기를...

부산 성암사, ‘따뜻한 밥상’ 무료급식소 개소식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상으로 부처님의 대자대비 사상을 실천하는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었다.

부산 성암사(주지 응현)는 부산시 남구 문현동 문현초등학교 인근에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을 열고, 지역 내빈 및 성암사 신도들과 함께 개소식을 7월 19일 개최했다.

성암사는 2003년부터 초음 어린이대공원에서 8년간 주2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사찰 인근에 무료급식소를 열고,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공양을 나눌 것을 발원해왔다.

이에 3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사찰과 인

접한 문현동에 단층 건물을 매입해 동시에 최대 100명의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로 개조했다. 건물 뒤편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유기농 채소를 재배한다.

무료급식소 ‘따뜻한 밥상’은 7월 25일부터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무료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때 남은 음식은 지역 내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가정에 신속히 배달된다.

성암사 신도 270여 명이 무료급식소 봉사자로 활동할 예정이며 접수해, 주지 응현 스님으로부터 봉사자 소양교육까지 마쳤다.

응현 스님은 “성암사의 사하촌인 문현



동은 빈부의 격차가 유난히 심한 곳으로, 성암사에서 기존의 반찬배달을 하는 어르신 세대의 생활고에 마음이 아팠다”며 “더 이상 우리 절 동네의 홀로 사는 어르신 중 단 한 분도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심시일 반 힘을 모아 무료급식소가 영원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어르신 복지 우리가 책임집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보수교육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사업

단 참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7월 20일 복지회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했다.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활동 도모 및 자금

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보수교육은 웃음치료강의와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늘푸른예술공연단’의 합창 등이 펼쳐졌다.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완)은 “앞으로도 지역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의 힘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명의 어르신 부처님 가피로 돌보다

무량수노인요양원 개원 5주년

사회복지법인 해월(이사장 선래) 산하 기관 무량수노인요양원(원장 각우, 법륜사 주지)이 개원 5주년을 맞았다.

무량수노인요양원은 개원 5주년 기념법회와 경로잔치를 문수관 2층 로비에서 7월 15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5주년을 기념해 입소자 중 ‘모범어르신’ 및 장기근속자, 모범직원을 선정해 표창장과 금일봉을 전달했다.

이사장 선래 스님은 법어를 통해 “전국적으로 요양보호소는 많지만 평균 입소어르신은 25명에 불과하나, 우리 원에는 1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으니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실천해 마음 속 양면과 편견을 다 버



리는 무상상보시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자”고 설했다.

한편 무량수노인요양원은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3,122㎡(944.74평) 규모로 물리치료실, 상담실, 가족면회실, 이벤트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현재 요양보호사 40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 등 총 60여 명의 직원이 100명의 어르신을 ‘1:2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051)552-7900 박지원 기자

대구 불교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한마음

불교계가 8월 27일 개막하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지역 각 불교종단과 수행단체가 참여하는 대구불교총연합회는 7월18일 운영위원회 열어 육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억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입하고

선수촌 불교관을 운영, 선수와 임원들의 신앙생활을 최대한 돕기로 결의했다.

대불총은 특히 육상대회 기간 중 입장권을 소지한 방문객에게는 템플스테이 무료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turn'em on

What is Buddha Cookie!!

법法과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식과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 시킨 것이 ‘법과(法果)’입니다.

- 법과 이벤트 (Event)

‘법과(法果)’ 속 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강렬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 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하여 시작되는 사찰 홍보·이벤트는 다른 어떤 유형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약속합니다.
- 법과 활용 (Use)

이미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2,000여개의 곳이 포춘쿠키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션,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미디어로서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청으로부터 검사, 통과 된 안심 먹거리 입니다.

※ 500개 이상 부터 주문 가능하며 원하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법과 쿠키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석회사 현대불교신문사)